

노리



[해제]

이 가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미 해제 가사로 “봄이로다 봄이로다 잇씨가 봄이로다 정원의 화발하고 장제의 초록한⊞” ⊞노래(⊞노리) 가사집에 수록된 한글 가사이다.

[원문]

⊞노리

봄이로다 봄이로다 잇씨가 봄이로다
정원의 화발하고 장제의 초록한⊞
종달식 흥의겨워 춤추며 노래하고
탐향하는 호접들은 쌍쌍이 왕내하이
거룩하다 봄의힘은 미물의 흥취까지
불어서 이르키이 하물며 사람에게라
우리는 청춘이라 사시로 이를진댄
솟피고 입필씨가 그도또한 봄이로다
만물이 봄을만능 희희락락 하려거든
청춘이라 호시절의 우리풍정 업슬손가
유유히 이러느셔 천지를 도라보니
우주가 널다히도 봄의품의 안겨고나
태평양 널분바다 봄물결이 잔잔하고
아계아 큰벌판의 춘기가 익익한대
그중의 금슈강손 삼철이 솟바다가
청흥으로 널엇스니 금승첨화 아름답다
그화원 주인공이 절문풍정 금치못히
훈풍의 호접처럼 솟사이 건일면서
향기마셔 목축이고 청아한 소래니여
솟노래 불을적의 미화가 벽두로다
미화야 말들어라 네즈딜 곱건만
한설을 무릅쓰고 분홍입술 반기하야
침복세기 제일차로 봄소식 전히쥬이
슈양공쥬 미화장을 턱도더욱 곱게하야
송풍정하 소자첨의 뉴락간장 근어닌다
쥬스의 미인되여 조스웅을 속여니고
철석간장 송경이요 미화부 곱게셋네
하물며 우리들은 호방한 풍유스라
설부킹향 어울두고 상심단장 안흐리만
빅자미빅 흥시흥은 너향열 어른이라
철업는 연소자와 봄다툼 하지마라
곡조를 넘기여서 목단화 물어보자

화중지 왕이라고 벽화가 축양하이
 엄연한 너의티도 제왕기상 분명하다
 화관을 곱게쓰고 화계의 높히안주
 화연을 베풀적의 아릿다운 년화부인
 국화주 포도주의 취흥이 목농하야
 년보로 춤을추고 자약은 정승이라
 송딴부 호령하야 죽충신 불너오니
 강기한 투운소래 봉황이 깃드리네
 화왕의 질김속의 봄이장차 곱허가이
 가엽다 화왕이여 부귀공명 솜인줄은
 뉘라셔 알앗스며 뉘아니 슬퍼하리
 흘너가는 노래소리 도화횡 불너니여
 슈집어 하는양은 네태도 아릿답고
 년분홍 고은빛은 네마음 분명하다
 한들한들 봄바람은 네얼골 쓰쳐가고
 팔낭팔낭 호접들은 네입술 건드릴제
 완상하는 청춘남녀 솟아리 모헛건만
 그중의 누구하느 네심스 알아닐가
 춘풍을 원망마라 흥안이 박정타고
 월하의 두미인이 시름업시 노래할제
 낙양의 최처스가 정신이 황홀하야
 담을넘어 싸라가이 도화정기 속이엇고
 강남홍 창압해서 청누절기 비웠스니
 장두의 섯실망정 흥인외히 웃자안에
 못그니 유라량아 헛간장 근치마소
 도화유슈 흐른후의 별우천지 일헛스니
 피란쳐 쥬진춘을 도화밧게 누구아리
 그러나 자랑말게 위경조우 가는비가
 그딴홍장 적실적의 구슬눈물 부리리다
 도화횡 곱친후의 명스십이 히당화야
 벽화중의 신선총호 히당화야 네로구나
 네일흠 히당아라
 바다건너 왓다하에 봄바람 잔물결의
 슈로로 기말이를 고향을 뒤로두고
 멀이흘너 예왓스니 슬픈한숨 토하민가
 고독신세 한탄으로 간장이 썩엇능가
 아릿싸운 예태도의 향기업단 원말이야
 옛적의 엇던스람 다섯가지 한을들어

그중의 한가자가 허당무항 한이라에
 박명하다 허당어여 향기업고 곱을진된
 청춘시절 조흔때의 뉘라셔 도라볼고
 그나마 타향의셔 어느대누 도라가리
 그러나 허당화야 인간의도 악운잇셔
 너갓흔 박명미인 하누둘 안일진이
 너심스 동모하야 동정엇지 안흘손가
 익쓰는 이노리를 두고십지 안컨만은
 이화원 드러셔이 비곳도 차자보세
 결벽할스 그뒤마음 군즈지심 그안닌가
 천하제일 낙양의도 이화춘 만날씩면
 오름소연 쇠를지어 금안준마 세워두고
 술부어 노리하이 이화세승 노름쫓타
 일노써 일을지면 그대형락 조컨마는
 슬푸다 마외파의 절대미인 양귀비가
 천조풍안 차져와셔 푸참히도 목미일제
 불당압 비누무의 아춤이슬 되엇스니
 귀비의 만고한이 피눈물 자아닉여
 비숫츠로 화희쓰면 불근곳 피럿만은
 희고도 담담하니 그심스 모를노다
 원한을깃 쳐시마는 그뒤복역 할양업셔
 가을바람 부여올제 빅즈천손 모을지니
 오장도부 흥은히도 천만연을 전하리라
 그길노 도라셔니 녕변의 낙사동디
 이즈러진 바이틈의 진달니야 피엿구나
 세승풍진 뉘모르니 신세고요 허건만은
 그옥흔 손골쪽의 뇌롬기 가이업다
 화모의 흥엇스되 무정흔 남편의계
 쇼박마즌 신세라니 진달니야 춤말인야
 네모양 추허던야 네형실 무정턴야
 미금쥬슈 이웃허야 심심산곡 원일인야
 도원돌이 변화속의 뉴즈숨춘 놀건만은
 부지흔 초동목슈 앓곰업시 썩거간니
 외로와셔 잇다말게 날이격고 일반닐세
 그중의 열미업셔 쏘지면 그만인니
 아들낫코 쌀낙키도 그도또흔 틀엿구나
 여보요 세승사람 진달니 웃지마쇼
 쇼박마즌 안악니가 인간의도 닛슬지며

무도한 이세송의 날이맛과 다반이라
 아들딸 못낳는니 인간의 업슬손가
 이제모다 세상스라 마음드로 못홀진니
 하필코 진달니 웃지말고 돈정호쇼
 솟치라 초조간니 슬픈신세 쏘이로다
 화바람의 도라셔서 농촌을 굽어보니
 조박조박 초가집웅 박솟치 웃는고야
 퉁쥬노인 갓하굴니 그모양 우섯더니
 굵툼툼 그심성은 참하기 짝이업네
 아춤에 피어다가 저역의 진다마라
 심덕이 보복잇서 유자유손 할양업다
 가난한 우리농가 소종이 요긴하고
 놀부가치 막훈농을 증계하니 쾌할시고
 이럼으로 뉴덕군조 그뒤사랑 고잇초내
 여보아라 쇼연들아 명심하고 들어보게
 미인은 박명이요 흥낙은 춘동이니
 부딪솟출 사랑하되 미식을 탕취치말고
 복스럽고 억괴잇고 요권하고 조손만흔
 박솟출 사랑하되 그심성 쏘바드오
 노력하며 돌너본니 호슈갓튼 모시잇서
 그릇의 솟핏스니 일흠이 연솟치라
 부용화 말만듯고 이제보니 네로구나
 전당호 안니어던 어이어기 와잇는야
 녹지의 조라나면 인간쓰절 갓가와셔
 연하고 고운조질 흥여나 송할가바
 은진옥척 동무하야 슈궁심의 흠이려가
 말근물의 모욕하고 단증을 곱기하야
 일손의 뉘피들고 파도다라 우습썩이
 낙시놋튼 늘근이도 절문마음 나겟거든
 강동의 쇼총원은 쇼연흥취 방발시라
 연화미인 만난후로 미일밤 괴약두어
 후원별당 곱흔디셔 옥환으로 정표히니
 앓감다 처련야야 연솟썩거 가을지면
 소처스의 곱흔정을 뒤라셔 바다줄고
 처련곡 부르면서 흘너가도 물이로다
 무평갓튼 니몸이야 부평초 그양모라
 정처업는 부평초야 너도솟치 피엇구나
 네신세 솟업스니 네고향 어디힌야

천지간 만물들니 근본잇서 살건만은
 너흔조 썬신세가 어디가랴 가이업다
 못밋들건 세승스라 쓰라린 운승하예
 쇼낙비 닷철면 썬리쫓초 도바간니
 여보쇼 그말마쇼 이몸은 썬풀이라
 이제가지 넉고향도 잇섯다 흠되다
 그러나 이팔조가 셔렵고 된후로는
 바람이 부는되로 물셔리 치면 치는되로
 슈국을 집을삼고 지향업시 흘너가오
 나썬인가 하지마오 세승의도 썬못만나
 곤궁종적 부평가치 뉴락하니 만타하되
 총절이 상결갓흔 초나라 굴숨여와
 절기눔흔 김시습과 글줄흔는 김사지
 올치못흔 썬을만나 뉴리꽃박 하여잇고
 지금으로 일을지면 흰웃입은 썬선스람
 국파국망 현후의 피팔라이 표견되셔
 북간도 셔간도로 남부여되 흘너간니
 썬선사람 만잇스면 피눈물 급할손가
 부평가치 썬심익는 이럴두고 이름인니
 썬선사람 심각하고 부평초 박되마쇼
 우리몬되 쓰지잇셔셔 강기오열 만손튼니
 이노리 듯고난니 흥중이 터지구나
 그썬노리 그만두고 사구라썬 무러보조
 사구라야 왜왓느냐 네고향은 왜국이라
 금슈강손 탐이나셔 사라보조 건너왓나
 현히탄 건널적 네마음 엇더터야
 네조딜 연약하니 험인지심 업슬지며
 네모양 곱소하니 고향시름 이스켰다
 하오리 펄렁펄렁 네입튼 의복이요
 불안썬는 마루바닥 네살튼 살임이라
 포구의 날저무면 갓튼식도 도라오고
 산기슬의 금조들도 집을차조 들것마는
 말이타향 스구라야 돌아갈썬 왜모르나
 이강손의 고은꽃들 이만히도 넉넉하다
 봄바람 후덕하야 꿈을시러 준다하니
 네동무 너찾는다 고국으로 갈지어다
 노리도 노리지만 혼조한니 힘이든다
 친구찾는 마음으로 벗꽃치나 초자보세

널분들 꺾치업다 벗꽃춘 네세계야
 날저무러 나올치고 미친바람 모다올제
 인적이 적적한디 친구업다 하을마라
 네집심 불벼흐니 사랑흐리 잇스리라
 우정은 슈이잇셔 술마시만 조타하고
 사랑은 돈에잇셔 한평싱 스라가도
 똑갓흔 세상이오 모로보나 가로보나
 간스하고 약은인싱 아무리 내싱이가
 짤다고 말하여도 낫부고 조흔거슬
 물타노코 살슈업네
 석조의 안영이는 친구사꿈 도리잇셔
 구이경지 하엿스니 닉총절 다를손가
 뺏꼇을 하직흐고 무려보즈 버들기지
 춘풍을 늦치엿다
 천만스 디룬실노 잡아미지 못흐엿나
 도연명 문암히셔 그디곳 나여가면
 세상이 미워라고 쥬어오곤 하엿지만
 부여성 뵈날터전 락화악의 날이는꼇
 눈물조아 낼지언정 앓겨쥬리 누구더냐
 천안이라 삼거리에 십이장제 출버들은
 경의선 철노날제 흔적업시 사라지니
 우리강손 자연경이 이다지도 파괴되에
 디동강변 세버들은 평양경계 도아쥬어
 빅노리 활적마다 버들기지 날이난양
 이별의 우는님이 눈물쳐렴 떠러져도
 그의맘 나의맘을 걸기놀출 왜모르고
 꺾꼬리 노릭불너 시름만 조아낸다
 봄꽃춘 이만흐고 가을꽃도 차즈보세
 심양강 빅머리의 강쥬사마 안죇슬제
 실실하게 나라오는 그곳일흙 노화로다
 초다한 나그내에 심스측연 하려거든
 떠러지는 노화조춘 슈슈글기 썩이업다
 기력이 남족으로 슬피우며 나라가고
 체량흔 초싱달이 강첸을 비첸적에
 소슬한 바람따라 노화가 나뵈끼니
 성소린 장부심스 우량학을 늦길어라
 초연히 발을돌여 쳐스춘 드러가니
 뜰암히 황금화원 국화야 반갑고나

춘풍이 부러와도 너흔즈 만발하야
 느즌향기 즈랑하니 네절기 장하도다
 꽃넙는 세상에서 네독히 총이받고
 절외총신 문압해는 네순상 지극하야
 네솟채 이슬바다 옛나라 스기쓰고
 국화쥬 취케먹고 전원을 다스리니
 도처스 은둔상의 너로서 썩지윳네
 국화야 네아는야 오늘세상 인심들을
 산속을 최우고져 국토을 파라먹고
 이해의 정신일허 동족을 속여니고
 권분세가 집을쳐져 아침하기 힘을쓰고
 잘난사람 미워하고 못난사람 학되하고
 빅성은 죽어가도 청누출입 일숨은이
 슬푸다 우리간손 이억만양 굴지되이
 피엎는 우리들이 국화보기 붓그럽다
 말근노리 다부르고 비장한 이노리로
 솟노리를 마치려이 흥중의 울적한맘
 상류가 흘너나니 옷깃슬 적시닛다
 가슴의 소회잇서 솟노리 썩지마는
 가지각식 고운솟들 다노리 못하오니
 널이싱각 하옵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니불니 병골이요 흥동이 힘예업서
 심화도 불어니고 웃기을 돕기위히
 이노리 쓴거시이 두일고지 두고시라
 하나으로 말하지면 노동의 계신엄마
 집외로히 안즈게서 병든져을 싱각하심
 태손하히 갓하길니 이노리 드리오니
 절무실대 놀든흥취 노리의 회싱하스
 즈미로 보오시면 심심푸리 되오리다
 쏘하나로 말할지면 우리집안 몇낫쌀니
 부탁이 잇셔기로 이노리로 선물하이
 가엽슨 규중신세 지독한 식집소리
 흑시나 틈잇서서 고향싱각 나그들낭
 이노리 불은후의 알들한맘 조아내여
 흘으는 구름의다 그맘실어 보니쥬렴
 나의소원 이고시니 잇지말면 만족이라
 슬푸다 나의존재 이노리 하여녹코
 어나곳 스라는가 조흔세월 도라와셔

다시보기 지원극통 바라오나 니나히
만흔온이 다시보기 시울손가
헛부고 가련ㅎ다 어셔어셔 평화도여
우리집만 연쥬인 너희들 심오중반
고향의 도라와셔 그리든 부모쳐조
반가이 만나와셔 옛말ㅎ고 사난모양
보고죽기 지원일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